

© Frederick W. Mote, *Imperial China 900-1800*, Part II. 정복왕조와 남송, 1127-1279

9장. ‘생(生)여진의 발흥

907년 당이 망하고 1279년 몽고의 중원정벌까지 중국에는 하나의 중심이 존재하지 않았음.

1. 아골타의 도전

요사(遼史: 원 1343년 탁극락(托克托) 저, 116권)에 따르면, 1112년, 요의 천조제가 여진 땅에 남시어, 추장들에게 춤을 추도록 명령한다. 단 한 명, 길림촌 추장 아골타만 춤추기를 거절하였다. 요 황제가 이에 잡아 죽이려 하였으나, 주위의 만류로 그만두었다.

그 아골타가 1114년, 요나라에 항거하여 부족회의를 소집, 이듬해인 1115년에는 아골타의 2만 병력이 70만 요나라 주력을 격파하였다. 1115년 아골타는 나라 이름을 금(金)이라 정하고, 황제의 위에 올랐다. 1120년에는 요의 북쪽 수도를, 1122년에는 중경을 접수함으로써 요황제는 서경으로 피난간다.

북중국의 요 유민은 금과 송 양쪽에 투항함으로써 동맹의 분열을 획책. 1124년 금은 서하에 동맹을 강요하여 1125년 요의 천조제를 포획. 1125년 금의 2대 황제 태종은 송과의 전쟁을 선포. 1127년 송-금 화친조약. 1. 요에 바치던 세공보다 늘어난 세공을 금에 바친다. 2. 연운 16주를 포기한다. 3. 송의 황제는 진 황제를 삼촌으로 섬긴다. 1126년 금은 송을 다시 치기로 결정. 1127년 송 황제 항복, 금에 끌려가고, 황제의 어린 동생이 1127년 남송을 세움. 1114년에서 1127년 사이 금은 요나라와 송나라를 모두 멸망시킴.

2. 요 왕조의 멸망

요는 여진, 고려, 서하, 발해 등 잠재적 적국에 둘러싸여 있었음.
또한 통치 엘리트 사이의 끊임없는 내분을 막아야 했음.

요 멸망의 결정적 요인은 여진족의 발흥. 1116년에는 1029년에 복속된 발해가 여진과 함께 반란을 일으킴. 그 결과, 요의 동쪽 수도가 여진족에 넘어감. 1117년 여진은 요에 화친을 제안하나 요는 여진을 ‘형’으로 모실 것을 거절, 1120년 아골타는 요의 수도를 접수. 1122년과 1123년 여진의 연이은 침략을 간신히 막아냄. 요는 송과 여진에 화친을 제안하나, 이미 송-여진은 비밀동맹을 맺은 뒤.

요는 왜 망했을까? 요는 기본적으로 거란적 특징을 끝까지 유지했다.
중국적 중앙집권체제를 만들지 못한 요 황제는 관료제의 도움을 별로 받지 못했고, 부족적 이해관계가 황제의 권위를 잠식했다. 따라서 정과, 친인척, 부족간 다툼에 좌우되기 쉬웠다.

서요. 황족인 야율대석이 1131년 몇몇 동료들과 함께 도망하여 중국 문서에 서요(西遼)라고 알려진 새로운 거란제국을 설립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을 검은 거란족(Black Khitans)이라는 의미로 카라키타이(Karakitai)라고 불렀다. 1143년까지 다스린 야율대석은 문화적으로 거란과 중국 양면을 훌륭히 소화한 모범적 사례. 12세기에 서요, 서하, 금, 남송이 동아시아 대륙의 주요 세력. 13세기 초반에 몽고제국이 이들을 모두 정복할 때까지.

3. 금에 의한 북송 멸망

1076년 왕안석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유교적 가치를 회복하여 사회를 일신하려는 북송의 정신은 퇴보를 거듭함. 휘종 시대(1100-1125)의 대규모 반란들. 1115년 송-금 간에 요를 치는 비밀동맹을 맺기로 한 해상의 맹약. (송이 금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요에 보내던 세폐를 금에 보내는 대신, 금은 연운 16주를 탈환하여 송에 돌려준다.) 그러나 금은 자신에게 대등한 예를 갖추지 않는 송의 태도에 점차 불만. 1122년 합동 군사작전을 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금 혼자 요를 멸망시킴. 1123년 아골타가 죽자, 왕위를 이은 그의 동생이 1125년 송을 치기로 결정하고, 1127년 북송 멸망.

북송은 왜 멸망했는가?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허약했음. 휘종대에 들어 타락한 궁정과 중앙정부.

4. 여진족은 누구?

진 왕조는 만주 북방과 동단에 자리잡고 있었던 생/야인 여진으로부터 시작. 1074년경 철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문자, 달력, 화폐, 관리 제도가 없었다. 생여진족이 가부장적 사회체제를 갖추고, 철기시대로 들어가고, 관직의 기초적 형태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950년에서 1100년 사이의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이들의 사회 질서는 매우 불안정하고 가변적이었으며, 금 왕조 내내 이것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진족은 거란으로부터 전쟁 방식을 배우고, 중국적 사회 조직을 채택하는 기민한 면모를 보임.

5. 여진의 성공 원인

1114년 아골타는 금 왕조를 선포하고 요가 그러했듯 중국적 국가 모델을 채택한다. 그러나 요와 진 모두, 초기 황제들은 부족적 이해관계와 중국적 국가 제도를 조화시키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금은 태조 아골타 때에 그의 출신부족인 '원안' 부족의 관습법을 전체 여진족에 적용하고, 모든 족장임명권을 중앙에서 장악함으로써 황제권을 강화한다. 또한 여진족 고유의 100집으로 이루어진 '무케'와 1000집으로 구성되는 '맹안'을 제도적으로 표준화함으로써 국가적인 동원제도를 확립하였다. 또, 1120년에 여진 문자도 창안되었으나, 실제로는 거란 문자와 한자에 치여 성공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 1124년에 아골타가 죽자 그의 동생 오걸매가 요를 정복하고, 서하와 조공관계를 맺음으로써 북중국 전역을 장악하지만, 이후 국가건설과 통치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10장. 여진 국가와 그 문화정책

1. 정복에서 통치로

중국적 황제가 되어 통치 기구를 채택하고 확장해 나아가야 하는 동시에, 부족을 기반으로 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족의 족장 자리도 유지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

120년간의 금 왕조사는 네시기로 나누어짐.

2. 이중 제도의 시기, 1115-1135

금이 요 형태의 국가 건설을 본받으려 했다면, 여진족의 본거지를 유지·강화해야 했음. 그러나 그 대신 금은 여진족을 대규모로 중원으로 이주시킴. 이러한 대대적 이주는 여진족의 문화적 특징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경제적 우위도 빼앗음. 그 결과, 금 정부는 요나라보다 취약.

3. 중앙집권의 시기, 1135-1165

3대 황제 희종은 중국 언어, 역사, 경서에 밝았으며 여진적 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평가됨. 15세의 어린 나이에 재위에 오른 희종은 강력한 삼촌들과 권력을 다투다가 1141년 살해됨. 그 뒤를 이은 해릉왕 또한 중국 시에 능했으며, 중국적 제도, 의례, 궁정관례를 적극 채택하고, 지방 군사 사령관들의 자율성을 박탈함. 그는 남송 정벌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관리가 이를 반대하였음에도 강행하다가 1161년 전장에서 부하에게 살해됨. 해릉왕의 각종 중국적 중앙집권 정책 (1)1153년에는 금의 수도를 현재의 베이징이 있는 남경으로 옮기고, 중경이라 개명. (2) 중국적 궁정의례를 제도화하고, 금나라 시조 황제들의 무덤을 중경 근처로 옮김 (3) 1150년대 후반, 황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 구조개혁. 그 과정에서 155명의 왕자를 처형하고 특권을 박탈하고, 자신의 측근을 멩안-무케의 수장으로 임명. (4) 옛 송의 수도였던 개봉을 새로 단장하고 금의 남경으로 지정.

4. 여진적인 것으로의 회귀 시기, 1161-1208

세종과 장종 시기는 금의 전성기. 세종은 해릉왕의 중앙집권적 제도 개혁의 수혜를 받음. 문제는, 정복한 지 50년, 중원으로의 대대적 이주 30년 만에, 여진족이 중국적 사회 형태에 너무 쉽게 동화되었다는 점. 정복민족인 여진족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한족의 지배를 받는 형국. 숫적으로도 밀림. 1180-1183년 세종은 이에 대대적인 재조정에 나섬. 먼저, 무케 유닛에 생산력이 높은 토지를 할당. 또한, 유교 경전의 여진어 번역. 하지만 여진족 식자들은 이미 중국 원전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도는 여진어 사용을 넓히는 데 도움이 못 됨.

장종 시기(1189-1208)에 이르면, 여진족은 부족적 습성을 거의 상실. 이 점, 중국을 학습하

는 것과 별개로 초원적 자질을 고수한 거란족과 대조됨. 세종 시기에 시작된 중국적 시험 제도가 중국 경전 및 역사 학습을 일반화시켰고, 장종의 한족 왕비와 외척들이 중요 세력으로 등장. 장종 말기에 남송이 쳐들어오지만, 방어함.

5. 진 왕조의 종말, 1208-1234

장종 이후 모든 황제의 어머니는 한족. 궁정에서 한족 세력의 증가를 보여줌. 1211년 칭기스 칸 쳐들어옴. 대부분이 몽고인이었지만, 금에 대항하는 거란, 여진, 서하인도 몽고에 가담. 1213년 몽고의 2차 침입. 1214년 강화조약 이후, 선종은 남경(개봉)으로 천도. 분노한 칭기스칸 1215년 중경 함락. 금나라는 이제 원래의 본거지였던 중앙 아시아와 여진족으로부터 완전히 절연됨. 칭기스칸의 목적은 영토를 차지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벌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북부 중국의 인적·물적 피해 극심. 16세기까지도 회복 못 함. still, 몽골이 금을 멸망시키는 데에는 20여년이 걸림.

12장. 금 지배 하의 변화들

1. 분리: 남-북, 한-非한

여진은 거란이나 탕구트족보다 훨씬 넓은 지역과 인구를 다스렸음. 금과 남송 왕조의 공존은 중국 문명의 남북 분리를 의미함. 또한 중국과 비중국(또는 '야만')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 경계는 분명 존재하였으나, 반드시 상호 적대적인 것 아니었음. 아웃사이더가 중국인이 되기를 배운다면 환영한다는 열린 자세가 기본.

정복자와 피정복민의 관계에서 극심한 반 여진 감정의 증거는 별로 없음. 의외로 중국인들은 이방 지배자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 한족이라는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방인에 대한 증오와 저항으로 전환되지도 않았음.

중국적 민족 정체성의 의미? 중국은 전통적으로 나라, 지역, 지방별로 구어는 달랐지만, 언어로서의 한어가 공유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정치적 경계에 따라 언어적·문화적 정체성이 결정되지는 않았다. 문화적으로 비한족은 정치적으로 같은 국가에 속하더라도 비한족이었다. 한족이든 비한족이든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다른 문화적 선택을 하면, 정체성이 바뀔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금나라에서 여진족과 한족의 혼종문화가 탄생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북송 문화의 연속과 심화.

2. 여진의 우위

정부 고위직과 요직은 여진족이 독식하였다. 한족 뿐 아니라 거란이나 서하출신도 군사 기구에서는 점차 배제되었다. 따라서 한족 엘리트의 몽고나 남송으로의 이반 속출. 여진족이 문화적으로는 점점 중국화될수록, 특히 군사 문제에 있어 한족을 덜 신뢰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함.

3. 공직 시험의 영향

송과 같은 과거제를 채택하였으나, 이러한 공개시험을 통한 충원은 하위직에 한정되었다. 즉, 금나라 역사에서 한족은 문화적으로는 영향력이 컸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1173년에는 비록 한족과는 이원적 형태로 운영되었지만, 여진족 엘리트에게도 중국적 공무원 시험제도가 적용되기 시작. 그 규모면에서도 요나라의 10배에 육박. 한림원을 만드는 등 문화적 중국화가 가장 심했던 서하에서도 과거제도가 공식 채택되지는 않았음. 금은 청나라 이전에 이처럼 광범위한 교육제도를 유지한 유일한 정복왕조. 이러한 과거제도의 영향은? (1) 이민족의 지배 하에서도 한족 엘리트의 정체성을 비슷하게 유지 (2) 금 왕조 자체의 관리 충원 필요에 부응 (3) 시험 합격 여부와는 별개로 문인 계층의 양산

4. 금 왕조의 상류문화

왕조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 북송의 문화적 유산을 물려받았음을 과시하려고 한 나머지, 후기 금 황제들은 한족의 이념과 관습을 이용하였고, 그 결과 부족적 전통을 상실하는 데에 이르렀다. 연극과 통속문학의 발달. 몽골 정복 이전 북부 중국의 경제적 여유의 방증.

5. 금 시기의 경제생활

금은 거란과 송 화폐의 유통을 허용하였고, 해릉왕 때인 1153년 지폐를 발행, 1190년대까지 안정적으로 사용.

조약과 무역. 10-13세기는 '순전한 권력 정치'의 합리성이 지배한 시기. 한족은 거란족과 여진족을 동등하게 대접할 수밖에 없었음. 또한 이 시기 조약은 상호적인 평화와 이익의 보장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 피정복지에서 탈취한 재물과 연례세폐 덕분에, 1120년대 이래 금의 재정상황은 매우 안정적. 1142년 이후, 금-송 국경을 따라 정부가 통제하는 20여개 이상의 개시 열림. 송의 수출품은 차. 금의 수출품은 금, 진주, 모피 등등. 송의 무역이익은 금에 바치는 세폐를 벌충. 금 또한 송과의 무역을 통해 화폐, 재정 시스템을 학습하는 한편, 북송의 문화와 상품을 향유.

12. 후기 서하 (생략)

13장. 남송과 한족의 생존

1. 도망친 왕자-새로운 황제

북송의 수도였던 개봉은 1126년 금에 함락당한다. 이 때 마침 개봉에 없었던 황제의 어린 동생은 북송의 저항군과 유민을 모아 1127년 송의 남경에서 스스로 황제에 오르니, 이가

고종이다. 이들은 금의 군사적 압박으로 인해 1127년 말에는 보다 더 남쪽인 양주로 내려가야 했다. 고종은 감히 금과 전면전을 펼칠 수 없었지만, 북송 유민을 기반으로 건국했다는 명분으로 인해 이 문제를 도의시킬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2. 전쟁 대 평화

고종은 어떻게 해서든 제국의 평화를 지키려는 정책을 경주했고, 그 결과 남송시대는 “중국이 내향적이 된 시기”로 평가되기도 한다. 주전파와 주화파 간의 논쟁과 대결은 남송의 정통성과 관련,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악비 대 진회. 비록 악비가 훗날 일종의 신화로 등극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상 진회가 극렬히 비난받지만, 군사적 주장인 악비를 문치에 복속시킨 1140년 고종의 결정은 송의 정치 전통에서는 타당한 결정이었으며, 북송이 요와의 화평조약을 통해 오랫동안 안정적인 평화를 누린 역사적 사례를 거울삼아 전쟁을 피하고 왕조를 유지하려고 한 고종의 노력은 일정한 가치가 있다.

3. 1141년 조약 이후 상부정치의 패턴

1141년 남송-금 화친조약의 내용. 매년 조공을 바칠 것. 송은 금을 장자국으로 섬길 것. 매년 금 황실의 생일과 신년에 선물 및 축하사절을 보낼 것. 그 대가로 고종의 어머니 남송으로 송환. 고종의 양아들 효종은 진회같은 전권 재상을 절대 용납치 않기로 마음먹음. 고종과 효종이 제위한 60여년 동안 강력한 황제 리더쉽이 형성됨. 그에 비해 이후 3대 황제가 통치한 75년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었고, 1189년 이후 중앙정부는 다시 재상의 손에 넘어감.

남송-북송 모두 핵심적 문제는 황제와 재상의 관계. 이는 황실과 신료들 간의 갈등을 드러냄. 송 왕조는 신유학이 중요한 정치적 문법으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이전 시대와 구별됨. scholar-officialdom. 신유학은 학문정신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신유학자의 이상을 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직에 진출해야 한다는 모순을 안고 있음. 진회, 한탁주, 사미원, 가사도는 모두 남송의 전제 재상들. 주회는 사미원에게 발탁되었다가, 한탁주에게 ‘거짓학문’을 하는 무리로 비판받고 1196년 관직에서 쫓겨나지만, 주회의 도학은 남송 이후 학문 주류로 자리잡음.

14장. 중국 문명과 송의 업적

1. 새로운 사회적 요인들

새로운 (엘리트) 문화의 출현. (1) 남송시기에는 엘리트와 사회 일반의 관계가 주자학의 윤리를 매개로 본질적으로 바뀜. 정부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리더쉽. 세계에 대한 직접적 책임의식. (2) 부의 증가. 도시 발달, 서적 인쇄술, 문자해독률 증가.

2. 엘리트의 생활과 송의 고급문화

심판과 자연과학
조명성과 이청조

남송과 공리(功利)학자들. 맹자 盡心章 下, 民爲貴 章, 孟子曰,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진량(1143-1194). 정치와 철학은 사회적 현실을 수용해야 함. 실용적 정치기술과 문제해결
능력을 호소하면서 송 정부 비판. (1) 지나친 중앙집권. 지방으로 권력을 이전할 것. (2) 금
왕조와의 조약에 의존한 가짜 안보.

엽적(1150-1223). 진량과 달리 과거에 합격, 관리로 오랫동안 재직. 오래 살면서 많은 저작
남김. 강한 정부와 황제 권위의 제도화를 주장. 역사상 통치 체도의 구체적 사례 분석.

신유학 이상주의자와 합리주의자들.

육상산의 심학.

주희와 신유학의 완성. 모든 사고는 유교 경전에 근거를 두고 전개되어야 함. 유학의 정전
(canon) 편집과 유학사 서술을 통해 도통(道統)을 확립함. 체계적 공부법 제시. 매우 많은
저작을 통한 영향력 확대. 1313년 주희 편집본이 공식 시험교재로 선포됨. 주희에게 지식의
확장은 사물의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지, 사물 그 자체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과
학보다는 형이상학적 추측을 조장하는 측면 있음. 또한 윤리적이고 제례적으로 올바른 인간
관계를 문제의 객관적 분석보다는 우위에 둬.

15장. 남송의 삶 - 포괄적 시각 (생략)

16장. 13세기 중반 개관

1. 요, 서하, 금 시대의 유산

요의 발흥부터 몽골 정복 전까지의 3세기 동안(920-1230년대) 중국과 내륙 아시아 역사의
중요성.

한족과 비한족의 관계는 단일한 양상을 띠지 않는다. 명.청 조공제도를 소급적으로 적용한
'중국적 세계질서(Chinese World Order)'는 명대의 한족 중심 역사서술과 16세기 이후 서
양인들의 단순화된 이해에 의해 만들어진 신화. 10-13세기까지 중원-초원관계의 역사적 진
상은 이와 사뭇 달랐다. "China among equals"의 시대. 19세기가 되면 중국은 서양제국과
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고 또다시 새로운 "China among equals"가 되기 위한 쓰라린 시
간을 보내는데, 흥미롭게도 10-13세기 자신의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음.

2. 의례화된 국가간 관계의 시스템

이 기간 동안 한족/중국이 초원지대에서 온 이민족 지배자에게 보여주는 매우 유연하고 실용적인 태도. 물론 궁정 토론에서는 ‘야만족’ 운운하지만, 대외문서에서는 어디까지나 상호 정중하게 예의를 지치는 정치적 언사 채택.

이 시기를 특징짓는 다수의 화친조약과 잘 다져진 외교적 절차의 준수. 사신을 보내고 맞는 의전, 사절의 지위보장, 연례 외교사절. 이것의 기본은 한족 전통. 그러나 이것은 ‘중국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지켜진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서 이용되었음. a “technology” for resolving problems.

pp.381-382 고려가 북송과 요에 펼친 삼각외교를 사례로 설명. 요-북송 간의 천연조약 (1005)이 이루어지자, (특히) 고려와 요는 중국적 외교 관행에 따라 행동.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함으로써 상호 이익의 추구. 1123년 금 또한 정식 사절을 같은 관행을 준수하여 고려에 정식 사절 파견. 금으로서는 아골타가 죽었고 북부 중국 정벌하느라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고려-송의 움직임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음. 또한 금은 요가 완전히 복속되지 않은 한, 고려에게 조공관계를 요구할 근거가 부족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

--> 초원유목민들이 일단 중원을 장악하면 중국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중국화되었다는 테제에 대해, 어디까지나 정치적이고 전략적 고려에 의해 chinese system을 이용했을 뿐, 이라는 주장. 그러나 적어도 내부정치에 있어서는 여진의 경우 실제로 중국문화에 흡수되는 모습을 보임. 그렇다면, 국내정치원리와 국제정치원리를 이처럼 이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본질적으로 이념화된 것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p.383, 385 하단에서는 조선이 유구와 함께 중국 사회의 조직원리로서 주자학 이념을 내재화한 예외적 사례로 언급되고 있음. 조선과 고려는 달랐는가? 왜? 금과 요는 왜 다른가? 금은 요와 달리 중국화되어서 초원적 본성을 망각했기 때문에 망했나?)

p.384 Chinese forms prevailed; but Chinese interests did not dominate the ritualized relationships among states. 이러한 중국적 시스템의 공유는 한족과 이방족 양쪽의 이익에 기여했다. 송나라 또한, 군사적 열세에 의해 부득이할 때에만-그러므로 전략적으로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될 때에는-요나 금과 화친조약을 맺고 세태를 바꿨다.

2. The Chinese Pattern in Non-Chinese Hands
3. The Growing Scope of International Trade
4. The Cultural Interaction (불교의 역할)